

仁川廣域市 地域의 國債報償運動

이 상 근*

이
상
근

I. 머리말
II. 日帝의 韓國侵奪과 借款攻勢
III. 민족의 자각과 국채보상운동
IV.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V.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VI. 인천광역시 인접지역의 국채보상운동
VII. 맺음말

I. 머리말

1868년 明治維新으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아시아의 대국 청국을 한반도로부터 제압하였다. 1902년 영일동맹을 계기로 외교적 입지가 강화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을 도발하여 러시아를 패퇴시켜 세계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침예하게 대립하였던 청국과 러시아를 물리친 일본은 한국침략을 가속화하였다. 1904년 5월에 의결한 대한방침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또는 일본에 ‘병합’ 할 것을 결정하였다.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조약’ 체결를 강요하

* 대불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여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화 하였으며, 영국·미국을 위시한 서구열강들은 한국에서 공사관을 철수함으로써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사실상 승인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1907년 한국군대를 해산시키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한국침략을 가속화하자 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이에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여,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제국시기 국권회복 논리는 약육강식·침략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해야만 가능하다는 자강독립론이었다. 계몽운동은 기본적으로 문명개화론에 기초를 두고 서구문물의 수용으로 국민의 실력을 양성하여 ‘자강’을 이룩하자는 국권회복론이었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여 국민의 계몽활동과 국권을 수호에 진력하였다. 민족독립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국어를 갖고 닦아야 한다고 믿었으며,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급 사립학교의 증가로 역사교과서의 편찬도 활발하였는데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한 운동의 전개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민족종교의 출현과 기성종교의 민족운동이었다. 국채보상운동도 그러한 배경에서 전개될 수 있었다.

1907년 초 한국정부의 대일차관은 1,300만원에 이르렀는데 그 액수는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정도였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의한 국채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렇게 일제의 집요한 침략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가중 되어갈 때, 1907년 대구에서 김광제·서상돈이 중심이 되어 국채를 민간인이 보상하자고 주장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동참하였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학계의 관심을 모아 적지 않는 업적이 있다.¹⁾

1) 崔 竣, 「국채보상운동과 프레스 캠페인」,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1976)
 朴容玉, 「국채보상운동에의 여성참여」, 『사총』 (제12. 13합집, 1968)
 박용옥, 「국채보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朴용옥, 「국채보상운동의 발달 배경과 여성참여」,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아세아문화사, 1994)
 李松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제15집, 1978)
 李尙根,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18집, 1990)
 이상근, 「영남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일제의 한국침략과 영남지방의 반일운동』(한국근대사연구소, 1995)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24, (국학자료원, 2000)
 趙恒來, 「국채보상운동의 발달과 전개과정」,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아세아문화사, 1994)
 愼鏞廈,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위의 책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1월 29일 대구에서 발단되었지만, 먼저 의연을 실시한 곳은 인천항신상회사였다. 인천은 1883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을 위시한 외국 세력의 진출로 인천 주민들은 그들의 횡포를 일찍이 체험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당하게 되어 침략적 외세의 침투에 저항적 요소를 갖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II. 일제의 한국 침탈과 차관공세

1) 일제의 경제적 침탈

19세기 후반 조선에 대한 서구세력의 개방 압력은 청국·일본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아울러 상이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 연근해에 서양 선박들이 출현했던 시기는 청일 양국과 동일한 시기였지만, 18세기 중엽 이후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상인들은 중국과 일본에 교역 근거지를 확보하여 교역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조선왕조는 이들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²⁾

그러나 쇄국을 고집하던 대원군은 최익현 등의 상소로 조정 내에서 그들의 지지 세력이 축출되었고, 대원군 역시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쇄국을 고집하던 대원군이 실각하였다는 소식이 일본정부에 전해지자, 조선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정부는 조선 정부에 대해 개항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일본은 雲揚號 사건을 일으켜 江華島條約(丙子修護條約)을 1876년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에 따라서 朝日修好條規附錄과 通商章程이 체결되어 일본인의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의 사용,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등 일본인의 경제적 침투가 허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정치적 침략의 필요에 의해 부산 이외에 원산과 인천을 개항시켰다.³⁾

개항 직전의 조선사회는 산업 전부분에 걸쳐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봉아적 형태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은 외국 자본제 상품의 대량유입과 미곡을 비롯한 국내 1차 상품의 대량유출을 가져와 국내산업

●
 吳斗煥, 「한말 차관문제의 전개과정」, 위의 책

鄭晉錫,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위의 책

2) 최덕수, <강화도조약과 개항>, 『한국사』37, (서울: 탐구당, 2000), p.218.

3) 변태섭, 『한국사통론』(서울: 삼영사, 1986), pp.390-392.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조선은 자본주의적 성장이 미숙하였던 일본에 의하여 개항을 맞이하였고, 청일 양국은 서구열강에 의하여 제국주의적 침략을 받으면서 근대로 급속한 이행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국내의 사회적 모순을 조선사회로 전가시켜, 자국 자본주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 침략과 더불어 정치적·군사적 침략을 받게 되어 이른바 ‘이중의 외압’을 받게 되었다.⁴⁾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열강의 동향은 일본에 의해 독점체제가 구축되어 갔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강제로 <暫定合同條款>을 맺어 전선·철도·광산이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일본을 시작으로 삼국간섭 후 러시아가 주도권을 행사하였지만, 이에 구미 열강이 기회균등을 주장하여 러시아의 불간섭과 묵인하에 수 많은 이권을 차지했으며, 일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구미 열강으로부터 여러 이권을 전매하는 형식으로 이를 획득하였다.⁵⁾

일본은 열강의 이권침탈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국가였고, 많은 열강 중 광산에도 가장 먼저 진출하였다. 일본은 개항 이후 유망한 광산을 탐지하였으나, 갑신정변 실패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재진출을 시도하였다. 일본은 직산금광 채굴권 획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전 광산에 불법 침투하여 한국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 인한 폐단이 극심하여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실상은 날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일본은 철도이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경부철도 부설구상은 1880년대부터 등장하여, 청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대한외교의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경인철도 부설권도 미국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한편 경의선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에 의해 군사용 철도로 부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철도 부설은 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간선 동맥으로 역할을 하였다. 전선 이권도 한국의 정보를 탐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열강의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의 정세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통신 시설이 필요되었다.⁶⁾

4) 최덕수, <개항의 역사적 의미>, 앞의 책, p.324.

5) 이배용, <열강의 이권쟁탈상>, 『한국사』41 (서울: 탐구당, 1999), p.113.

6) 이배용, <일본의 이권쟁탈>, 앞의 책, pp133-141

2) 일제의 한국침탈을 위한 차관공세

한국정부는 일본을 위시한 서구열강에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이권은 열강에 넘어가고 한국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개항에 따른 제반 경비의 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수행하지 못하고 악화발행과 차관에 의존하였다.⁷⁾

한국정부는 근대화를 위한 제반 시설비와 외국인의 급료, 대외사건의 배상금등 제반 경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상품이나 금의 수출을 통한 외화유입은 외국상인에게 장악되어 있었고, 관세수입도 무관세·저율협정관세 등으로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차관을 통해 재정수요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1894년 이전까지는 청국의 차관이 많았으며, 이외에 일본, 독일 등에 의한 소규모 차관이 행해졌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김홍집내각에 300만원의 거액 차관을 제공하고 ‘내정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차관은 수년 이내에 변제되었지만 일제의 조선경제 침투는 강화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된 가운데 화폐개혁이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일본차관이 도입되었다.⁸⁾

한일간의 차관문제는 양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는데, 1880년대 갑신정변을 전후한 시기, 1894년 청일전쟁을 전후한시기,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한시기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번째 국채보상운동과 관계된 국채 1,300만원은 1904년 8월 제1차한일협약으로 目賀田種太郎이 재정보문으로 취임하여 재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그는 취임 즉시 ‘재정정리사업’에 착수하여 먼저 화폐정리자금채 300만원을 제기하여 제1차 차관공세를 전개하였다. 目賀田은 한국의 문란한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일본통화유통을 확대시키고 한국의 토착적인 상업구조를 재정비하여 일본세력에 흡수하려 하였던 것이다.⁹⁾

目賀田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국고증권채 200만원은 한국정부의 모든 부채정리와 재정유통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 지출의 자금을 충당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제기되었으나, 실상

7) 오두환, <한말 차관문제의 전개과정>,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대구문화방송(주)창사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p.21.

8) 오두환, 앞의 논문, pp.21-22.

9)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서울 : 대왕사, 1977), p.166.

은 국고증권채도 일본의 식민사업의 일단인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재정지출에 충당하려는 의도에서 획책된 것이다. 금융자금채 150만원건은 당시 화폐개혁에서 비롯된 금융공황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자금채의 명목으로 담보 없이 일본정부로부터 150만원을 차입하여 들었다. 이는 目賀田이 차관을 제안하여 토착자본을 일본자본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에서 금융자금채 150만원건을 체결시켰던 것이다.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제는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교육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확장정리, 도로·항만시설의 개수확충, 국방전의 정리, 일인 관리 고용 등 각종 명목으로 이른바 ‘시정개선비’ 조로 일본으로부터 고율의 차관을 도입하였다.¹⁰⁾

통감 伊藤博文의 역설로 시정개선 및 기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興業銀行으로부터 국채 1,000만원이 체결되었다. 1,000만원 중 구문전 100만원은 먼저 공제하고 실수금 900만원을 1,000만원조로 차입하였으며, 관세수입을 담보로 한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은 도합 1,650만원중 실제로 도입된 1,150만원과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1,300만원으로 국채보상운동의 대상이 되었다.¹¹⁾

III. 민족의 자각과 국채보상운동

1) 민족의 자강운동

애국계몽운동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제에게 국권이 침탈당하자 민족의 위기를 느낀 뜻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 운동이었다. 일제에게 <힘> <실력>이 부족해서 국권의 일부를 박탈당했으므로 <힘>을 기르지 않는 한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민족의 <힘>을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자기민족의 배양된 실력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된 부분은 국권회복을 위한 각종의 실력양성운동이 대체로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다.¹²⁾

애국계몽운동은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었다. 애국계몽가들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권회복과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반일 정치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을

10) 이승희, 「한말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 제15집, pp.4-5.

11) 조항래,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 『국채보상운동논문선집』 (태양기획, 1999), p.147.

12) 신용하,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韓國史學』 (제1집, 1980), p.269.

사조약 반대운동, 고종양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특히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을사조약에 반대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격렬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¹³⁾

1905년 이후 대한자강회와 신민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애국계몽운동가들과 단체들이 국내외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실천하였는데, 먼저 교육구국운동을 들 수 있다. 교육구국운동에 자극을 준 것은 의무교육운동이었다.¹⁴⁾

대한자강회는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장지연·윤효정·심의성·임진수·김상범 등 5인이 발기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활동하게 되었다. 교육의 진흥과 산업의 발달을 연구·실시함으로써 자국의 부강을 계획 도모하여 타일에 독립의 기초를 만들고자 하였다. 자주적인 자강독립을 꾀던 대한자강회는 교육자강·식산자강·정신자강 등 자강실현의 3개 방법론을 주장하였다.¹⁵⁾

대한자강회는 약육강식·적자생존의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명과 문명의 고도화가 약자를 강자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문명교육·실업교육·애국 교육을 통하여 능력 있는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자강론을 폈다. 이 시기 대한자강회의 교육구국운동을 민중들이 절대적으로 호응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교육구국운동에 맨 처음 자극을 준 것은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운동이었다.¹⁶⁾

이러한 교육구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한자강회에서는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학생들은 학비부담 능력이 없고, 사립 학교는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대한자강회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였지만 통감부의 계획적인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다.¹⁷⁾

신민회에서도 창립 당시부터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열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신식학교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신

13)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6 (서울: 탐구당, 1972), pp.381-394.

14) 신용하, 앞의 논문, p.282.

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1 (서울: 탐구당, 1987), p.174.

16) 이지우, 「대한자강회의 활동에 대하여」, 『경희사학』(9·10집, 1962), p. 59.

17) 이상근, 「애국계몽단체의 교육구국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수춘박영석교수회갑논총, 1992), p.182

민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각 지역에 학교설립을 유도하고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는 신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으로 애국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렇게 국권회복을 위하여 전개되었던 교육구국운동은 일제의 한국침략계획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민족진영에서 추진하고자했던 계획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면적으로 일제에 대한 항거는 지속되었다.¹⁸⁾

언론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은 신문과 각종 학회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大韓每日申報』는 양기탁·신채호 등 신민회의 중요 인사들의 주필로 활약하였으며, 일제의 침략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영국인 베델(Ernest T. Bethell)이 양기탁과 합작으로 경영했던 관계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배일사상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 신문은 이완용과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폭로·규탄하고 항일의병운동 및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과 민족자본육성을 적극 홍보하였다.¹⁹⁾

『皇城新聞』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是日也放聲大哭’이란 사실을 통하여 조약체결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조약체결에 협력한 정부대신을 규탄하며 온 국민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제국신문』은 하층민과 부녀층을 대상으로 국문을 해독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萬世報』는 천도교의 재정을 바탕으로 발간되어 국민계몽에 진력하였다.²⁰⁾

애국계몽신문들은 일제의 수많은 침략책동에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일제는 1907년 7월 신문지법을 제정케하여 민족언론을 규제하고 신문활동을 위축시켰으나, 경술국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정책에 대한 국민적 항일 여론을 일으켰다.

애국계몽단체들은 『大韓自強會月報』·『大韓協會會報』·『西友』등의 회지를 간행하였다. 애국계몽단체들은 회지를 통하여 교육의 필요성과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여성교육과 의무교육, 그리고 실업교육과 상무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육자강론과 함께 중요하게 다룬 것은 식산자강론으로 식산을 통한 경제구국의식을 계몽하였다.²¹⁾

애국계몽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식산의 부진에 따른 국가의 빈약에 있다고 보고, 식산흥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식산흥업활동이 현실적으로

18) 이상근, 앞의 논문, pp.182-3

19) 강재언, 「국권회복을 위한 언론과 그 수난」, 『근대한국사상사연구』(서울: 한울, 1983), p.171-173.

20) 이해창, 「언론기관의 활동」,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1974), pp.41-42.

21) 장지연, 「식산흥업의 필요」, 『대한자강회월보』제1호, pp.34-35.

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억제하고, 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강을 통한 국권회복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²²⁾

애국계몽가들은 식산흥업을 통한 민족경제의 건설을 국권회복의 하나의 방책으로 삼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나오던 이유중의 하나는 경제적 침체에 있다고 파악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부강의 실현이 곧 국권회복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민의 근로의식과 생산의욕을 고무시키고,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한 경각심과 근대적인 경제의식을 일깨워 민족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²³⁾

특히 민족산업의 진흥에 진력한 단체는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민족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민회 회원들이 합자형태의 공장과 근대적 기업을 설립 발전시켜 민족자본을 육성하고자 했는데, 상무상사·평양자기회사 등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단체를 설립하였다.²⁴⁾

이러한 민족경제자립운동과 함께 나라가 진 빛을 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 국채보상운동의 추진경위와 전개

국채보상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차관의 시작은 1882년 朴泳孝에 의해 제기되어 橫濱正金銀行으로부터 17만원을 차입한 이래²⁵⁾ 일본의 지속적인 침략정책에 의해 증가되었다. 이러한 차관의 증가가 곧 국권의 침탈과 연결된 것을 직감한 국민들은 1907년 1월 29일 大邱의 광문사에서 金光濟·徐相敦에 의하여 받기되자, 대구 시장의 영세 상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의연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²⁶⁾

1907년에 일본에 상환해야 할 외채는 총 1,300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한국정부로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²⁷⁾ 일제에 의한 차관의 공세가 더 가중되자, 이에 徐相敦·金光濟·金允蘭(일명:김병순) 등이 중심이 되어 斷煙會를 성립하고 그 실천방법으로

22)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대한자강회취지서」, pp.9-10

23) 柳永烈, 「대한자강회와 신민회의 민족운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일조각, 1997), pp.193-194.

24) 류영렬,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한국사』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p.304

25) 金正起, 『조선정부의 일본차관도입(1882-1894)』, p.526

26) 李尙根, 「國債報償運動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18, 1990), p.7.

27) 이송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15, 1978, pp.9-10.

서 2천만 국민이 1개월 연초대를 20전으로하여 3개월간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그 대금을 모으면 1,300만원의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⁸⁾ 대구 서상돈 등의 ‘국채 1,300백만원 보상취지서’가 『大韓每日申報』에 발표된 다음날인 2월 22일에는 서울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金成喜·劉文相·吳榮根 등이 國債報償期成會를 설립하고, 그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 애국운동을 연락 총괄하기 위해서 중앙인 서울에 기구가 필요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무소를 中署 洞에 설치하였다.²⁹⁾ 이어 기성회에서 시행해야할 회칙을 제정하여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고자하였다.

회칙은 일본에 대한 국채 1,3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방법은 일반 국민의 의금을 모집하되, 금액은 다소를 불구하고, 본회에 의금을 납부한 인원은 본 회원으로 인정하고 성씨와 성명 및 금액을 신문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채보상기성회와 목적이 동일한 각 단회는 상호 연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며, 의연금을 수합하여 목표액에 달하기까지 신용이 있는 본국 은행에 저금하기로 하였다. 단 의연 금액은 매월 말에 신문에 발표하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 국채보상기성회는 해산하기로 하였다.³⁰⁾

한편 기성회에서는 의연금 收錢所로, 夜雷報館 임시사무소, 廣學書鋪 김상만, 도동 건재약국 유한모, 大韓每日申報社, 尙洞 청년학원사무소, 서포 고유상·주한영 등 7개소를 지정하여 국채보상 의연금을 수합하게 하였는데 관민들의 반응이 대단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채보상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고종황제는 ‘우리 백성들이 국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단연하고, 그 값을 모은다 하는데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하면서 단연을 실천하니,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자가 증가하였다.³¹⁾

또한 국채보상기성회 설립에 이어 서울에서 國債報償中央義務社가 徐丙炎·尹興燮 등 민족 자살가 및 상인층에 의하여 설립하였다. 그리고 수전소를 황성신문사로 지정하며, 국채보상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그 포고문 내용은, 명칭은 국채보상중앙의무사로하고, 본사 위치는 한성으로 한다고 하였다. 목적은 1,300만원 국채를 2천만 동포가 각자 의연하여 보상하기로 하며, 모두 총력을 다하여 의연에 동참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금을 출연하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 1968, pp.174.

29) 위와 같음.

30) 『皇城新聞』, 1907년 2월 25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7일.

31)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논문선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10권, 1978), (대구 : 태양기획, 1999). pp.92.

는 인원은 성씨, 인명, 금액을 신문에 게재하여 동포들에게 수금 현황을 알리며, 수금소는 황성신문사로 정하고, 의금저치소는 본국 신용은행에 예금하기로 하였다.³²⁾

더불어 각 지방에 보상소를 설립하였는데, 3월 말까지 결성된 것만도 西道義誠會를 비롯하여 20여개에 달하였다.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각지에서 일어나자 의연금의 모금을 통일하고자 3월 말일에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를 설립하고 소장에 한규설(뒤에 윤용렬이 소장을 맡게 됨)을 추대하였는데, 지원금총합소 설립은 분산적이던 지역 지도층이 단합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되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일에는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각 단체를 통합하여 國債報償聯合會議所를 조직하여 의장에 李儁을 추대하고 대한매일신보사 양기탁으로 하여금 총무를 맡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였다.³³⁾ 이렇게 단체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의연금과 그 성명을 매일 지상을 통하여 발표하는 동시에 수합되는 의연금을 우선 한미 전기회사내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거액에 달하면 다시 세계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회사나 은행에 예치 혹은 임시 투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런 관계로 의연자들에게 신빙성을 얻어 1907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무려 4만여 명이 참여하였다.³⁴⁾

국채보상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호응이 대단하였다. 1908년 7월 27일까지 각 기관에 모여진 의연금 액수는 일본헌병대의 기밀 제407호 보고에 의하면, 18만 8천여 환으로³⁵⁾ 발표되었으며, 그 후 전국 각지에서 모여진 의연금은 약 2백 31만 989원 13전으로³⁶⁾ 집계되었다. 모금액은 일본헌병대에서 발표한 기관별 접수 총액과 지역별 모금 총액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IV.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인천은 19세기 말 외국의 무장상선의 출몰과 병인양요(1868), 신미양요(1871) 등의 사건 등으로 전략적 요지가 되었다. 더구나 일본을 위시한 서구제국들의 한국 개항은 인천

32) 이승희, 앞의 논문, p.10.

3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75

34) 대구광역시, 앞의 책, p.93-92

35) 崔竣,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 『韓國新聞史論攷』, 1976, p.125-126.

36)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75-176.

이 ‘도성(都城)의 인후(咽喉)’라는 인식 아래 국가의 중요한 요충지로 급부상 하였다.

朝日修好條規의 조약에 의하여 부산, 1880년 원산에 이어 1883년 인천도 개항되었다. 인천은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무명의 일본인도 인천에 건너와 한국침략의 첨병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일제의 침략은 20세기 초에 더욱 강화되어,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체제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조인케하고, 1905년에는 소위 ‘을사조약’은 군사점령에 의해서 강압과 음모로 체결되었다. 이제 한국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할 때까지 일제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침탈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³⁷⁾

인천은 일본에 이어 구미제국에도 개항을 하였다. 구미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통상과 거주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은 지리적 특성상 서울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고자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치열한 이권투쟁이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인천은 개화기에 있어서 단순한 통상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와 국제정치의 주무대가 되어 외국의 군함, 군대, 사절, 상인, 상품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1883년 9월 30일 조선의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과 일본의 竹添進一郎 공사 사이에 체결된 ‘仁川口租界約書’에 의하여 일본에게 인천에 전관조계지를 허용하였는데,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어 통상 등 각종 역할을 하였다.³⁸⁾

일본이 인천에 전관조계지를 설정하자 청은 이미 1882년 조선과 체결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종속관계를 확인하고 華商에 대한 특혜를 보장받았던 것을 근거로 조계를 설정하고자하여, 1884년 조선의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과 청의 총판조선상무 陳樹堂 사이에 ‘인천구화상지계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인천에 청의 전관조계지를 설정하였다. 청의 전관조계지의 특징은 청의 영사가 관리를 맡아 하였으며, 외국인의 거류가 허용되지 않았다.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하자 청의 조계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청인들이 살던 가옥을 일본인들이 임대하여 거주하면서 청의 조계는 잡거지가 되었다. 또한 인천에 일본과 청의 전관조계지가 설정된 후 각국의 공동조계가 설정되었다.³⁹⁾

각국 조계는 영국, 미국, 독일, 3개국의 요청으로 자유공원 주변의 14만평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의 항동, 관동, 송학동 일부와 북성동, 송월동,을 포함하는 광대한 땅이었다.⁴⁰⁾

37)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국사관논총』제1집, (서울 : 탐구당, 1989), p.1.

38) 노영돈, 「조일수호조규와 인천개항장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창간호 (인천 : 삼양기획, 2002), pp.8-15.

39) 노영돈, 앞의 논문, p.16.

일본의 전관조계지는 그 면적이 약 7천평으로 부산의 11만평과 원산의 9만평에 비교하여 매우 소규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구조계약서’에 의하면 일본인 조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구획하여 일본상인에게 분양하되 지역이 좁으면 조계를 더 확장한다고 하여 계속 확장하였다. 개항 후 인천에 최초의 일본인 거주는 1883년 4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인천보다 먼저 개항한 부산 및 원산개항장 거주 일본인은 4천명에 육박하였다.⁴¹⁾

인천 개항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인천거주 현황은 1883년 개항 당년에 일본인은 75호 348명이었으나, 청일전쟁 직전에 425호 2,504명으로 증가되었고 전후 1895년에는 709호 4,148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일본인의 유입은 당시 인천에 살고 있는 한국인 4,728명과 거의 맞먹는 수자로 인구가 증가였다.⁴²⁾

인천개항 이듬해인 1884년 인천항을 통한 무역액은 수출 184,917원, 수입 377,548원으로 총 무역액은 562,465원 이었으나 10년이 지난 1894년에는 수출 1,320,909원, 수입 3,703,115원으로 총 무역액이 5,024,024원으로 무려 9배가 증가하였으며, 1900년까지는 총 무역액이 11,232,384원으로 20배 이상이 확대되었다.⁴³⁾

당시 주요 수출품은 콩, 우피, 금피 등이었다. 한때 수입되었던 쌀은 18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출되었고 정미업의 성행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한편 콩도 주요한 수출품이었으며, 일본에서 양잠업이 성행하면서 콩밭은 뽕밭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콩 수출은 급속히 증가되었는데, 주로 평안도, 황해도에서 생산된 콩이 수출되었다. 한국에서 생산된 우피가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1900년부터 일본의 화폐제도를 금분위 제도로 전환하면서 한반도로부터 많은 금을 수탈해 가 많은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이렇게 일본자본의 침투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⁴⁴⁾

인천 개항 후 일본인들의 유입은 계속 급증해 갔으며, 이 시기에 인천에 온 일본인들의 직업은 무역업, 조업, 미곡상, 정미업, 여관업, 주류업, 잡화상, 선구상, 목재상, 요식업, 대금업 등이고 목공 및 잡역에 종사하는 자도 있었다. 특히 청일 전쟁 후에 일본조계 거류민 중에는 전당포 운영자가 많았는데, 인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당포 영업의 고객은 한국인

40) 최근식·최인순, 『인천항토사』, (서울: 우리교육, 1998), p.90.

41) 정광하, 「인천의 개항을 이용한 일본의 한국침략활동양상 고찰」, 『教授論叢』창간호, (삼양기획, 2002), p.5-13.

42)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1973, pp.343-345.

43)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중권), 1993년, p.1235.

44) 최근식·최인순, 앞의 책, p.91.

들이었다. 전당포를 통한 고리대금이 혹독하여 한국인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다. 당시 일본 거류민의 한국인에 대한 상행위는 실로 잔혹하여 한국인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자택에 사설 감옥을 만들어 놓고 한국인을 잡아 가두었다가 그 친척이 돈을 갚으면 방면해주었다. 또한 사기수법으로 한국인의 금품을 약탈하는 등 일종의 폭력배화 하였다. 일본인들의 악덕 상인들에 의해 한국인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다. 문화면에서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한국인간에 일본어 학습 붐이 일어났으며, 을미의숙이란 어학원이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다. 전쟁 후 새로운 움직임은 교육기관의 설립과 개방이었는데, 그것은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보급하여 친일화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⁴⁵⁾

1900년 일본인이 월미도 내 민가 80여호를 강제 철거하면서 백여 석의 보리가 수확될 밭을 훼손하여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조상의 묘까지 파헤친 사건이 일어나 한국 사람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인천부는 이를 중단시켰지만, 일본인들은 중단하지 않고 한국의 중앙 관리를 매수하여 ‘월미도 황무지 개발 사업 허가’를 받아내 월미도를 아예 일본인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였다.⁴⁶⁾

개항과 더불어 일제는 한국침탈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적·군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한국에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진출한 일본인들의 횡포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에서 날로 더해 갔다. 이에 인천항의 객주들은 개항 이후 외국상인들 특히 일본 상인이 결성한 ‘인천항 상법회의소’에 대항하기 위해 서구의 상업 조직을 본떠 회사를 조직하거나 상인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천객주회다. 이회는 기존의 보부상과는 달리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이렇듯 인천에서부터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것은, 인천이 1883년 개항한 이래 개항장 내 일본인 거주허용, 일본화폐의 유통, 일본선박의 항세 면제 등과 더욱이 수년간 대일 수출품에 대한 관세마저 규제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수락함으로써 일본인의 상권 신장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일본거류민들이 날로 증가하여 일본인들의 행패와 경제적 침투를 다 른 지역보다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⁸⁾

45) 정광하, 앞의 논문, p.13.

46) 최근식·최인순, 앞의책, p.90.

47) 인천광역시, 『仁川 歷史의 자랑』, (인천 : 진원출판, 2001), p.158.

4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pp.4-5.

V.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1) 仁川港紳商會社 의연

인천광역시 지역 국채보상운동은 인천항신상회사와 관계가 깊다. 인천항신상회사는 이 곳 상인들을 비롯하여 유지들이 참여하여 상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 곳의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인천은 일찍이 여러 나라의 외국상인들이 진출하여 각기 그들의 상권을 확장해갔다. 이 곳에서는 청국상인과 일본상인의 경합이 가장 심하였다. 그러나 일본 상인들은 상업회의소를 조직하여 점차 열세를 만회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은 일본의 정치적 세력과 경제적 우세를 배경으로 횡포가 심하였다. 이에 인천의 민족상인들은 1885년 일본상인들의 횡포를 막고 외국상인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천객주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후 객주회는 인천항신상협회의 모체가 되었다. 인천항신상협회는 또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의 핵심체로 발전하면서 일본인들이 조직한 인천항상법회의소에 대항하면서 민족상인들의 상권신장에 노력해 왔다. 인천항신상협회는 인천항의 객주 徐相濼 등이 주동이 되어 관리들과 민간 상인들이 모여 설립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객주들이었으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도 가입하였다. 1895년 정부에서 상무회의소규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인천항신상협회는 이 규례에 따라 새로운 상인 단체로 허가를 얻어 인천항신상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⁴⁹⁾

인천항신상협회의 창립 목적은 상인들을 계몽하고 상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업 방식에 따라 상업자세를 혁신할 것을 창립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국기를 1,500매를 만들어 각 동에 나누어 주고 경축일에는 국기를 집집마다 게양할 것을 회칙에 규정하였다. 이는 애국심을 불러 일키는 대단한 활동이었다. 더 나아가서 회원들은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비리 비행이 없도록 하며, 회원은 서로 친족과 같이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사이에 분규가 있을 때에는 신상협회에서 거중 조정하여 분란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도록 하였다.⁵⁰⁾

인천광역시 지역에서는 일찍이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49)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백년사』(인천: (주)인천일보, 1995), pp.26-65.

50) 인천상공회의소, 앞의 책, pp.68-69.

인천항신상회사가 중심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런 까닭에 국채보상운동의 발기는 대구였지만, 의연은 인천에서 먼저 전개하였다.⁵¹⁾ 仁川港紳商會社에서는 斷煙同盟會를 조직하고 각기 이름 밑에 ‘盟’ 자를 써서 서명하였는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은 박원순·김도선·김윤성·김종일·강운모·정재홍·장내홍 등이었다. 이 회사에 5인의 사환이 있었는데 평일에는 비록 사원과 사환의 구별이 있으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고하여, 사환들이 지원하면 사원과 같은 일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사환들이 모두 입회하여 회원이 12인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인천항에 거주하는 유지들이 많이 입회하여 의연금을 납입하였다.⁵²⁾ 이는 서울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중심기구였던 國債報償期成會가⁵³⁾ 성립되기 전이며 또한 황성신문사에 두었던 國債報償中央義務社 구성보다 먼저였다.⁵⁴⁾

2) 勸業社, 米商會社, 柴炭會社 등 의연

권업사는 賣買者 쌍방의 중간에 서서 일종의 수고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를 소위 중립 영업이라 하였다. 그 유래는 오래되었으며 처음에는 권업사라 칭하였으나 후일 권업소라고 하였다. 권업사의 조직은 소장, 총무원, 평의원, 조사원, 서기원 등으로 조직되었으며, 업무처리의 방법은 조사원이 항내 각 객주가를 순회해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을 조사해서 중매인 수수료를 매매자 쌍방으로부터 수취하였다. 권업소의 주지는 매매상의 신용을 장려하고 공평을 확실히 지켜서 상업의 발달을 도모함에 있었다. 특히 권업사 직원 44명이 어려운 처지에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대한매일신보사에 의연금을 접수시켰다.⁵⁵⁾

仁川米商會社에서는 인천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 부교장인 金弘濶이 학생들에게 국채를 보상하여 나라의 부강을 꾀하자고 일장 연설을 하자 학생들은 물론이고 향촌민까지 호응하여 국채보상에 동참하였다.⁵⁶⁾ 여주군 教育會右支社 사무장 金弘濟, 교무원 권중윤 등이 의연을 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⁵⁷⁾ 수원공립 보통학교 김

51) 『皇城新聞』, 1907년 2월 21일

52) 『황성신문』, 1907년 2월 21일

53) 『황성신문』, 1907년 2월 25일

54) 『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55)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3일

56)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2일

병천 등도 많은 의연을 하였다.⁵⁸⁾

柴炭商會는 1907년 인천항의 유지들이 영업상 필요를 느껴 동업자들을 규합하여 단체를 만든 상회였다. 이 단체는 동업자들이 연합한 회사였다. 그때 당시 시탄은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었다. 이 단체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원, 서기, 간사, 평가원, 찬성원 등으로 조직되었다. 시탄상회의 영업상 규모는 보통 조합의 규모였다. 그 내부의 활동으로는 회원 중에 병자자 있으면 이를 구제해 주고, 상을 당하면 장례를 도와주었다. 이들도 동업자의 연대 의식을 갖고 국채보상 의연에 많이 참여하였다.⁵⁹⁾ 뿐만 아니라 인천의 인접 지역인 양근군 초동들도 땀감과 짚신을 팔아 의연금을 수합하여 국채보상기성회에 의연을 하였다.

3) 仁川濟寧學校 의연

인천에도 몇 개의 공립학교와 종교계와 민간인에 의해서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사립학교 설립으로는 1899년에 다령면 독정리에서 유지들이 학계를 조직하여 기본금을 모아 교사 9간을 건축하고 개교하였다. 당시 교과목으로는 독서, 작문, 습자, 산수, 지지, 역사 등이었다. 인천박문소학교는 1900년 중구 답동에서 개교하였는데, 신자들의 자녀 및 무산 아동을 모집하여 초급학문을 전수하는 한편 전도에 힘쓰던 속칭 ‘천주학방’이 발전한 것이다. 인천제령학교는 1903년 6월에 인천항신상회사 사장 서상빈이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종교계통의 학교도 아니고 관공립 학교도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 설립한 것이다. 서상빈은 인천이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제국주의 세력이 진출하여 침략을 획책하고 있으므로 인천의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야간과 주간이 있었다. 야간은 인천외국어학교 출신으로 인천해관에서 근무하는 方判들이 교대로 영어를 지도하였다. 주간에서는 주로 신학문을 교육하였다.⁶⁰⁾ 특히 이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교육열이 대단했으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이런 까닭에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인천항신상회사 의연에 이어 仁川濟寧學校에서 서병두 등이 중심이 되어 90여명이 의연을 하였다.⁶¹⁾

57)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5일

58) 『황성신문』, 1907년 6월 21일

59)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백년사』, (인천 : (주)인천일보, 1995), p.112.

60) 인천광역시교육청, 『仁川教育史』, (인천 : 송의기획, 1995), p.206-211.

61) 『황성신문』, 1907년 3월 14일

4) 仁川掬米積誠會 의연

인천지역과 더불어 인접지역에 부인 의연으로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동에 사는 전 의관 민준식의 부인 장씨는 대안동부인총회로 의연금을 보내자, 총회에서는 장씨에게 강화군 부인회 설립을 권장하기도 하였다.⁶²⁾ 또한 인천인접지역 여성들은 부인회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의연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인천·김포군 등지에 仁川·米積誠會, 남양주군부인의성회, 안성군국채보상부인회, 김포군검단면국채보상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의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인천의 국미적성회는 1907년 3월 29일 발기하였으며, 발기인은 박우리바·여누이사·정혜스터·장마리아·김쓸비여·송전심이다. 국미적성회 발기 개회는 엄씨 누이 사택에서 개최하였으며, 회원수는 80여명이었다. 이 중 20명을 권고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 2명이 한 마을씩 맡아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고하였다. 이 결과 회원 수는 활동 수일 만에 500여명으로 증가되었고, 음력 2월 한 달 동안에 수합된 의연미는 18섬 8되 8홉이며, 의연금은 동화 254원 36전, 1냥중짜리 은비너 2개가 수합되었다.⁶³⁾ 적성회는 절미로 국채보상을 하자는 것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黔丹面國債報償義務所 의연

1907년 행정단위로는 김포군 검단면 고찬리에 거주하는 한씨·노씨·김씨 등 여러 부인들이 일본에 진 빚을 갚아 나라를 구하고자 국채보상사무소를 조직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군내 각 동리마다 가정을 방문하여 국채보상사무소 발기 취지서를 설명함으로써 부인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참여하도록 하였다. 의무소 설립 취지서를 발표하였는데, 취지서에 그들의 활동 내용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충효의 윤리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국채보상은 국가의 흥망과 직결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나라가 위급한 때에 부인들이라고 편안이 있으면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부인들의 뜨거운 충성심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의연출연 방법은 돈이 귀할 때에 돈만 낼 것이 아니라,

62)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17일

63) 『제국신문』, 1907년 3월 14일

64) 『제국신문』, 1907년 3월 25일

65) 『황성신문』, 1907년 3월 16일, 18일, 25일, 27일

금·은 패물이나 각종 곡식 등을 가지고 힘닿는 대로 의연하자고 역설하였다.⁶⁴⁾

이곳에서는 의연 물품에 패물·곡물 등이 많이 있었는데 패물을 의연하는 부인회의 경우 일상생활에 소용이 없는 사치품을 오히려 국가를 위하여 유효하게 쓰자고 하였고, 또 곡물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때 절용한 것을 의연하자고 하여,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패물·곡식이 많이 의연 되었다는 점이다.

VI. 인천광역시 인접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인천광역시 지역을 시발로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은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어 개성부·강화군·부평군·양천군·김포군·고양군·진위군·양근군·시흥군·안산군에서 의연자가 속출하였다.⁶⁵⁾ 개성교육총회 연조인원록을 보면 전개성부윤 한영원 외 115명이 6,190원을 의연하였다. 의연 인원도 많이 참여하였지만 의연액수도 많은 것이다. 의연자들을 보면 전직 관료 출신들이 많았다. 전군수, 전경무관, 전참서관, 전감찰, 전사간, 전시중, 전정량, 전의관, 전도정 등 전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직급들이 참여하였다.⁶⁶⁾

강화군 서원면에서는 인동, 대문동, 냉정동, 남산동, 이정동, 신지동, 신당동, 창동, 선향동 등 전군에서 참여하여 142원 55전을 의연하였다.⁶⁷⁾ 그리고 강화군내에 있는 사찰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전등사, 정수사, 백련사, 원통사, 보문사 등에서 송계화 외 37명이 7월 80전을 의연하였다.⁶⁸⁾ 이 밖에 강화군 북면 남궁탁 외 64명이 6월 60전을 의연하였으며, 화도면 유기양 외 192명이 43원 59전과 같은 면 이태영 외 108명 150원 80전을 의연하였다.⁶⁹⁾

고양군 사리대면 문봉리에서 백철수 외 58명이 14원 40전을, 유산리에서는 이준영 외 52명 20원 30전을 의연하였다. 신현면 진관내리 김운선 외 33명이 5원 22전, 외리 최병훈 외 55명이 15원 40전을, 사패 진관리 모응표 외 30명이 4원 62전을 의연하였다.⁷⁰⁾ 이외에 고양군 구지도면 화수리, 서행신리, 일패리, 능동, 외성동, 원당면 신원리, 일패리 상리,

66)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13일

67)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8일

68) 『황성신문』, 1907년 6월 21일

69) 『황성신문』, 1907년 3월 16일, 4월 3일, 4월 9일

70)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1일

주교상리, 대자상리, 송현리, 송산면 가좌동, 구이면 성동 등 고양군에서는 전군이 의연에 참여하였다. 고양군은 인천광역시 인접지역 중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지역별로 전군에서 거의 빠짐없이 의연에 참여하였다. 또한 의연금과 의연에 참여한 인원도 많으며, 전직관리에서 촌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참여도가 높았다.⁷¹⁾

특히 수원에 거주한 김제구·이하영·임면수 등은 기독교인으로 애국심이 뛰어났다. 이들은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서 많은 활약을 하였는데 취지서 수 백장을 만들어 경기 각 군에 살포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이삼일에 의연금 5백여원이 모금되었다.⁷²⁾ 또한 水原英語三學堂贊成會에서도 활동을 하였는데, 金濟九는 회장이며, 李夏榮은 서기를 맡아 군민들에게 의연을 호소하였다. 수원영어삼학당찬성회에서는 회장, 서기 외에 보상회 재무원 나성규·차유순을 두었는데, 이들이 헌신적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자 미담이 신문에 소개되어 인접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⁷³⁾

국채보상을 위한 보상소는 인천항신상회사 단연동맹회를 시발로 개성·강화·고양·수원·포천·시흥·장단·여주·이천·광주·풍덕·양주·과주 등지에 설립되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보상소 역시 신문에 게재된 지역 외에도 인천광역시 인접지역에 설립되었다.

인천광역시 인접지역의 국채보상의연 현황은 大韓每日申報(1907년 2월부터 동년 10월 25일까지), 皇城新聞(1907년 2월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국채보상의연금수입광고란에 게재된 내용 중 인천광역시 인접지역에 모금된 내용만을 발췌·분석하여 의연금 모금상황을 살펴보고자한다. 의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천광역시 인접지역에서 양근군이 제일 많은 인원과 의연금을 모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참여 인원이 약 1,766명이며, 모금 액수는 약 8백 4십 7원 95전이다. 양근군은 타군과 비교하여 부락단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의연금을 많이 기부하였는데, 이 곳은 지역적으로 연대 의식이 강하였다.⁷⁴⁾

다음으로는 광주군인데, 참여 인이 약 1,602명이며, 모금 액수는 약 5백 7십 6원 95전이다. 광주군은 전직관리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기호흥학회의

71)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4일

72)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14일

73)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1일

74)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24, 2000), p.199.

경기도지회가 6개 설치되었는데, 광주군지회가 가장 먼저 설립되어 국민들에게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⁷⁵⁾

광주군에 이어 양주군에서도 약 1,564명이 약 2백 8십 6원 89전을 의연하였다. 양주군에서도 전현직 관리와 교사·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풍덕군인데 약 643명이 약 190원 23전을 의연하였다. 이곳은 문중 중심의 의연이 많았다. 남양주군은 약 546명에 약 1백 4십 8원 66전을, 포천군에서는 약591명이 약 1백 8십 8원을 의연하였다. 수원군은 약 231명 참여에 2백 1원 54전을 의연하였다.⁷⁶⁾

VII. 맺음말

인천광역시 지역 국채보상운동은 비록 이 운동이 경상도 지역에서 먼저 발단되었지만, 인천지역의 개항과 함께 외국인들의 경제 침탈을 일찍 경험한 인천 주민들은 인천 상인들의 구심체였던 인천항신상회사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에 먼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단연동맹회 및 보상소를 설립하여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의연금이 수금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관문에 위치하여 정계 변동 등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과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외세의 침입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체험한 지역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지역 및 인접지역은 전통적으로 항일 정신이 투철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일제는 한국을 침탈하기 위해 경제적 침탈을 획책하였다. 일제는 열강의 이권침탈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국가였는데, 광산, 철도, 전선 등에 진출하였다. 또한 일제는 경제적 침투를 위하여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였다. 결국 일제가 제공한 차관은 1907년까지 누계가 1,300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한국정부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일본은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을 예속화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계획된 침탈에 벗어나기 위해 민중들은 자강운동에 합류하였다. 먼저 자강운동은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신식학교를 설립하여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을 위하여 국력을 배양할 것을 역설하였다. 언론

7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222-223.

76) 이상근, 앞의 논문. p.199.

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은 각종 신문과 학회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자각으로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다.

인천광역시 지역 국채보상운동은 일찍이 외세를 체험한 인천항신상회사를 시발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에서 먼저 활발히 전개되게 되었다. 그리고 인천에 소재한 각종 회사에서도 의연이 이루어졌다. 민족의 계몽을 위해 설립된 인천제령학교와 여성이 중심이 되었던 인천국미적성회와 검단면국채보상의무소에서도 의연을 하였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인접지역에도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외채 1,300만 원을 갚아 일제의 경제적 침략을 막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 충정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으며, 애국계몽운동의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는 민족사적 운동이었다. 또한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여 애국정신을 고양시킨 운동이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들의 참여로 여권 신장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 일제는 국민들의 참여 속에 전개하였던 국채보상운동을 국권 회복을 위한 배일운동이라고 보아 ‘국채보상의연금비소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그 동기가 국권을 수호하자는 목적에서 전개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 많은 동포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비록 일제의 원천적인 봉쇄로 실패는 하였지만 한민족의 민족의식을 내외에 천명한 민족사적 운동이었다.

<참고문헌>

- 최 준, 「국채보상 운동과 프레스 캠페인」, 『한국신문사논고』(일조각, 1976)
- 박용옥, 「국채보상운동에의 여성참여」, 『사총』(제12, 13합집, 1968)
- 박용옥, 「국채보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84)
- 박용옥, 「국채보상운동의 발단배경과 여성참여」, 『일제경제 침략과 국채보상운동』(아세
아문화사, 1994)
- 이송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제15집, 1978)
- 이상근,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18집, 1990)
- 이상근, 「영남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일제의 한국침략과 영남지방의 반일운동』(한국근
대사연구소, 1995)
-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 연구』국학자료원, 2000)
- 조항래,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과정」,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아세아문
화사, 1994)
- 신용하,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앞의 책
- 오두환, 「한말 차관문제의 전개과정」, 앞의 책
- 정진석,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앞의 책
- 최덕수, 「강화도 조약과 개항」, 『한국사』37, (탐구당, 2000)
- 최덕수, 「개항의 역사적 의의」, 앞의 책
- 이배용, 「열강의 이권쟁탈상」, 앞의 책, (41, 1999)
-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대왕사, 1977)
- 신용하,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운동」, 『한국사학』(제1집, 1980)
- 이지우, 「대한자강회의 활동에 대하여」, 『경희사학』(9·10집, 1962)
- 강재언, 「국권회복을 위한 언론과 그 수난」, 『근대한국사상사연구』(한울, 1983)
- 이해창, 「언론기관의 활동」, 『한국사』(20, 1974)
- 류영렬, 「대한자강회와 신민회의 민족운동」,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일조각, 1997)
- 류영렬,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한국사』(43, 1999)

- 김정기, 『조선정부의 일본차관도입 (1882-1894)』
김운태, 「일본제국의의 한국통치」, 『국사간논총』(1, 1989)
노영돈, 「조일수호조규와 인천개항장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창간호, 2002)
정광하, 「인천의 개항을 이용한 일본의 한국침략활동양상 고찰」, 앞의 책
최근식 · 최인순, 『인천향토사』(우리교육, 1998)
장지연, 「식산흥업의 필요」, 『대한자강회월보』(1, 대한자강회취지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1, 1987)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6, 197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10, 1978)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중권, 199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1995)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백년사』(인천일보, 199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사』(송의기획, 1995)
『대한자강회월보』제1호
『대한매일신보』(1907-1908)
『황성신문』(1907)
『제국신문』(제국신문)

<ABSTRACT>

National Fund Raising Movement in Incheon

Lee, Sang Kun

Japan accelerated invasion of Korea after beating off Chung Dynasty and Russia in Korea peninsula. They maneuvered invasion not only politically and militarily but also economically. Japan was the most aggressive & persistent among other imperialistic countries exploitation in colonies. Imperialist japan provided a loan with Korea continuously to economic invasion and cumulative loan reached 13 million won in 1907. This amount was absolutely unpayable for korean government, with the consequence that korea was colonialized.

Korean people & leaders deployed 'Self-strength' movement to prevent japanese maneuvered invasion. 'Self-strength' movement included saving country by education and illumination people through press. Korean people deployed this kind of movement in various fields to recover national rights from japanese. National Fund Raising Movement was also one of the movements.

Even though National Fund Raising Movement started from Taegu, Incheon citizens who experienced economic exploitation early through opening Incheon port joined fund raising actively through Sinsang Corporation in Incheon port which was center of a merchant. And other corporations also joined fund raising actively. Incheon Jeryoung school which was founded for illumination people, women organizations; Kuk'mi Chuksong'hoi and Gum'dan myun fund raising office also joined fund raising. This movement was developed actively in Incheon as well near of Incheon area.

The National Fund Raising Movement was launched to repay 13million won to Japan to stop Japanese economic exploitation and to preserve Korea national independence. This was the center of patriot illumination movement. The movement was failed because of the strong reactions from the Japanese authority. Even though it was failed, it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nationalistic movement to demonstrate Korean people's patriotism out of country.

Key-words : National Fund Raising movement, Illumination people movement, Saving country by education movement, Anti-japanese movement.